

미군, 이란 드론 격추…미·이란 회담 앞두고 중동 긴장 고조

아라비아해 드론 격추…이란, 호르무즈 해협서 美 선박 위협
이스탄불 고위급 회담 변수로…트럼프 “이란과 지금 협상중”

충돌 기로에 선 미국과 이란이 외교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앞둔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미군이 이란 드론을 격추하고, 이란군이 미국 유조선을 위협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3일(현지시간) 아라비아해에서 에이브라햄 링컨 항공모함에 공격적으로 접근한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당시 에이브라햄 링컨호는 이란 남부 해안에서 약 500마일(800km) 떨어진 해상을 항해 중이었다.

미군 F-35 전투기가 격추한 해당 드론은 이란의 사해드-139 드론으로, ‘의도가 불분명한 상태’로 항공모함을 향해 비행 중이었다고 미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미군 병사와 미군 장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몇시간 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 병력이 미국 국적 선박을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미 중부사령부는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선박 두 척과 이란의 모하제르 드론 1대가 고속으로 유조선 ‘스테나 임페리얼’에 접근, 승선 및 나포를 위협했다고 미군은 전했다.

미국은 최근 이란에 핵 협상 제개를 요구하며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 등 주요 군사적 자산을 전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외교를 통한 합의가 여의찮으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태세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군사작전 여부에 대해 “무엇을 할지 말할 수 없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압박 속에 이란도 일단 대화에 응하기로 하면서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와 아巴斯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오는 6일 뒤르기예 이스탄불에서 만나 협정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이 회담은 미국이 작년 6월 이란의 핵시설을 기습 타격한 ‘미드나잇 해마’ 작전 이후 첫 고위급 회

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양국 간 불신이 깊어 작은 마찰도 회담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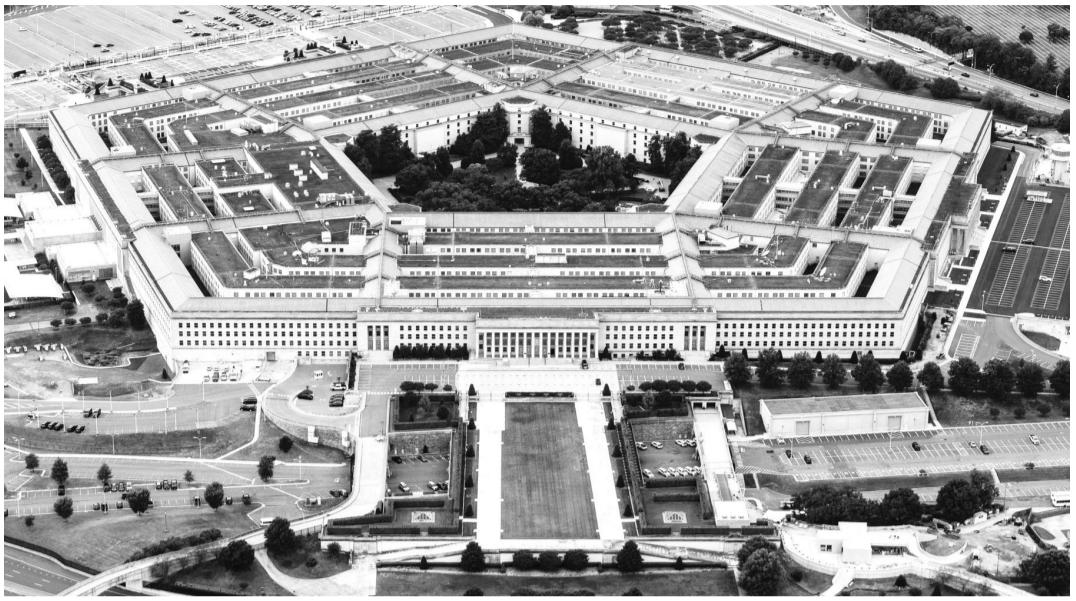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드론 격추로 인한 긴장 고조가 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질문받고서는 “난 방금 윗코프 특사와 대화했는데 현재로서 이란과의 대화는 여전히 계획대로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외교가 성공하려면 그럴 의향이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게 윗코프 특사가 (이란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모색하고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란과 관련해 여려 선택지를 테이블에 두고 있다”면서 “이란이 ‘미드나잇 해마’ 작전의 공습을 통해 그런 점을 잘 깨달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러시아가 혹한기 우크라이나 공격을 자제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잠시 멈춘 에너지 시설 공격을 재개한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어땠나는 질문에 “놀라지 않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예산안 서명식에서 “우리는 이란과 바로 지금 협상하고 있



FILE – The Pentagon, the headquarters for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is seen from the air, Sept. 20, 2025, in Arlington, Va. (AP Photo/Alex Brandon, File) FILE PHOTO

다”고 밝혔다.

그는 “내 생각에 이란은 그런 일(미드나잇 해마)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협상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엡스타인, 북한에도 관심…이메일서 대북 사업 논의 정황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참모와 주고받은 메일 공개

전세계 정관계 인사와의 유착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수감 중 목숨을 끊은 미국의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북한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3일(현지시간) 최근 미 법무부가 공개한 ‘엡스타인 파일’에 북한에서의 사업 가능성을 논의하는 엡스타인과 지인의 이메일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엡스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2017년 1월 29일 당시 뉴욕타임스 기자였던 랜던 토머스 주니어와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트럼프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인물이고 이는 푸틴과 북한에 중요한 성격적 특성”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권으로 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엡스타인은 트럼프 말대로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았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언급도 했다. 엡스타인이 보낸 이메일에는 “다만 트럼프는 진짜 미쳤어”라는 대목도 있었다.

그러나 이메일 발송 2주 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미국 대선을 앞둔 2016년 10월에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있었다고 NK뉴스는 지적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참모였던 올리비에 콜롱과 나눈 이메일에서는 북한에 대한 엡스타인의 관심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콜롱이 2013년 12월 6일 이메일에서 북한에 관심 있느냐고 묻자 엡스타인은 “아주 많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콜롱은 “그렇다면 뭔가 좋 것이다. 엄청 크고 완전 기밀이다. 1월에 모스크바에 가겠나”라고 다시 이메일을 보냈다.

엡스타인은 좋은 생각이라면서 북한에 다녀온 몽

골 대통령을 만나려 몽골에 가고 싶다는 말도 했다. 콜롱은 채굴 및 인프라와 관련된 100억달러가 걸린 문제라고 답장했고 둘 사이에 대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6월 12일에는 데이비드 스탠이라는 인물이 엡스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남북원을 만나려 북한에 가고 싶은데 방법이 있느냐’고 문의했다.

남북원은 김 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엡스타인은 제재 관련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스탠은 이를 뒤 다시 엡스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백악관에서 일했던 스티브 배넌을 통해 자신의 방북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났으며 북한 개발 사업에도 흥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들어서도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이며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 ‘멜라니아’, 첫 주 104억원 ‘깜짝 흥행’

예상 크게 상회…비평가 평점 5% vs 관객 평점 9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 첫 주말 북미 극장에서 ‘깜짝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시장조사기관 컴스코어 자료를 인용해 영화 ‘멜라니아’가 지난 주말 미국과 캐나다 극장에서 총 716만달러(약 104억원)의 흥행 수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이는 영화 산업 조사업체 박스오피스프로가 예측한 100만~200만달러(약 14억5000만원~29억원)의 예상 수익을 크게 웃돈 실적이다. 또 다른 조사업체 NRG의 예상치 500만달러(약 72억5000만원) 역시 뛰어넘었다.

작년 초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 전 20일 동안 멜라니아 여사의 행적에 초점을 맞춘 이 영화는 미국과 캐나다의 1778개 극장에서 개봉했다.

4000만달러(약 581억5000만원)를 주고 영화 판권을 사들인 아마존이 3500만달러(약 509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추가 지출해 극장에서 개봉했다. 역대 다큐멘터리 영화 중 가장 비싼 작품으로 추정된다.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과 극으로 갈린다. 미



미국 캘리포니아주 갈버시티의 한 영화 ‘멜라니아’ 광고판에 불타는 성조기와 그린 그라피티가 등장했다. 이 작품은 활동가 예술 집단 인디클라인의 소행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국의 영화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 따르면 영화 ‘멜라니아’에 대한 비평가 평점은 5%에 그친 반면, 관객 평점은 99%에 달한다.

몇몇 상영관에서는 박수와 함께 ‘트럼프 2028’이라는 구호가 나왔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북한식 프로파간다(선전물)’라는 혹평을 내놨다.

주로 공화당 우세 지역과 비(非) 도시 지역에서 이 영화를 많이 관람했고, 여성과 중장년층 관객이 많았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최근 로스엔젤레스 대중교통은 이 영화 광고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자 해당 광고를 단 버스들을 일부 재배치하기도 했다. 또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으로 퇴출당했던 ‘러시아워’ 감독 브렛 레트너의 복귀작이란 점에서도 구설에 휘말린 바 있다.

/연합뉴스

캐나다 교포, 160억원 로또 당첨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가 160억원 복권에 당첨됐다.

3일(현지시간) 캐나다서부복권공사(WCLC)에 따르면 앨버타주 에드먼턴에 거주하는 이태성(사진)씨는 지난해 10월 ‘로또맥스’에서 1등에 당첨돼 1500만 캐나다달러(약 160억원)의 주인이 됐다.

그는 “매장에 있는 기기로 당첨 여부를 확인했을

때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믿기지 않아서 다시 한번 스캔해봤다”고 말했다.

당첨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아내와 딸에게 가장 먼저 이를 알려 함께 기쁨을 나눴다.

그는 몇 년간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다며 이번 복권 당첨으로 “드디어 어머니를 뵈러 한국에 갈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 QR코드 :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합니다.



사건번호	매각 물건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
물건 번호	소 재 지 및 면적[㎡]	최저매각가격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단위: 원]

[대지/임야/전답]

2024타경 8490	광산 구 소동로 198-110 82011번지 [지상연고 이상분묘소재, 연접한소총63-3,4,72,762 1-3,5,6과 계구획없이 조경수식, 조경수식 재부분에 층면수, 흙수면으로보호종, 개발수목 인식표[번호1], 부동면리증인점등고려해조 경수평기제보]	임야	4,428,594,000	지상 소재재사지인간 4,428,594,000
			4,428,594,000	지상 소재재사지인간 4,428,594,000
2025타경 4792	서구 금호동 236-2 136㎡	대	4,208,730,000	일괄매각, 목록30- 33지구 소재재사지인간 4,208,730,000
		대	4,208,730,000	일괄매각, 목록30- 33지구 소재재사지인간 4,208,730,000
2025타경 5030	동소 239-3 510㎡	대	17,901,000	17,901,000
		대	17,901,000	17,901,000
2025타경 5504	장성군 서남면 149 549㎡	전	152,444,000	일괄매각, 목록2,3 152,444,000
		답	152,444,000	일괄매각, 목록2,3 152,444,000
2025타경 33298	동소 50-1 2226㎡	답	44,520,000	44,520,000
		답	44,520,000	44,520,000
2025타경 4907	광광구 법정면 삼당리 292 659㎡ 광광구 법정면 삼당리 1번			